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출장기



[영국 FULHAM 크레이븐 커티지 경기장]

국가대표 축구팀은 A매치 27경기 무패를 달성하며, 지난 11월 세르비아 전을 위해 영국에 입성했다. 지난 11월 18일 영국 FULHAM 경기장에서 있었던 세르비아전은 아쉽게도 패했다. 하지만, 허정무감독을 중심으로 2010년 남아공월드컵 16강 진출을 위해 힘찬 출발을 시작했다.

출장은 2009년 마지막 국가대표 평가전이었던 세르비아전 코멘터리 중계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에 다녀왔다. 단순히 코멘터리 출장의 의미를 넘어서 축구 종주국 영국을 좀 더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조니 헤인스' 선수 동상 앞에서]

축구를 유난히 사랑하는 축구 종가 영국

영국은 축구 중주국답게 런던에만 프로팀이 7~8개나 되는 축구 사랑이 대단한 나라이다. 제일 인기가 있는 스포츠 종목은 프로축구인 프리미어리그로서, 1888년에 시작되어 100년이 넘는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이번 세르비아전이 있었던 템즈강이 바라다 보이는 영국 런던의 FULHAM 크레이브 커티지 경기장은 고풍스런 건물과 붉은 벽돌이 어우러져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기에는 아까운 느낌의 경기장이었다. 지정 건축물(우리나라로 하면 문화유산 정도로 정부의 보호를 받는 건물)이라고 하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존과 관리가 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기장 앞에 '조니 헤인스' 선수의 동상을 세울 정도이니 그들의 축구 사랑이 얼마나 큰 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영국 런던의 대부분의 건물은 100년이 훌쩍 넘어간다는 것이다. 오래된 고풍스런 건물이 수세기 동안 잘 관리되어 오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귀품 있는 자태를 자랑하는 여러 건축물을 보면서 역사를 아끼고 소중히 하는 영국인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세르비아전 코멘터리 시스템 구성

출장은 위성 채널에 코멘터리 메인 회선을 구성하고, ISDN 회선으로 예비 회선 구성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청약이 코멘터리 장비가 완비된 코멘터리석으로 되어 있지만, 가지고 가는 장비를 믿고 하기로 결정하고, 장비를 미리 세팅하여 출장준비를 했다.

코멘터리 출장시 준비사항

1. 청약되어 있는 통신 라인 및 장비 확인

- ISDN인 경우는 ISDN 코덱을 현장에서 제공하는지, 제공한다면 모델을 미리 파악하고, 매뉴얼을 통해 간단한 조작법 등을 숙지한다. 북미 방식인 경우와 유럽 방식인 경우, ISDN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 전화라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IDD폰(국제직통전화)용으로 청약이 된다. ISDN 회선이 문제가 있을 시에 전화라인을 통해 오디오 코멘터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 예비 회선을 구성할 수 있다.

2. 출장 국가의 전원 플러그 타입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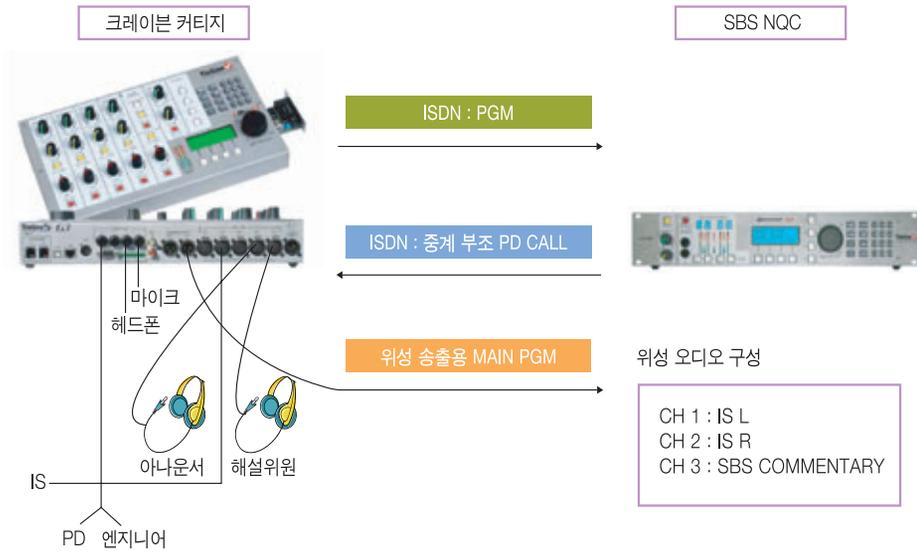
- 각 나라마다 전원 플러그 타입이 다양하므로 그 나라에 맞는 전원 플러그를 준비해야 한다.
- 여행자용 멀티 전원 플러그도 좋은 방법이 된다.

3. 세관신고서 작성과 출국시 제출

- 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장비를 보여주면, 확인 자료를 주게 되는데, 입국시 제출하면 된다.

4. 코멘터리 개통도 작성과 테스트

- 현지에 청약되어 있는 장비를 고려하여 개통도를 그려보고, 대략적인 시스템을 파악한 후 테스트를 해야 한다.



[TIELINE i-Mix G3을 이용한 Commentary 시스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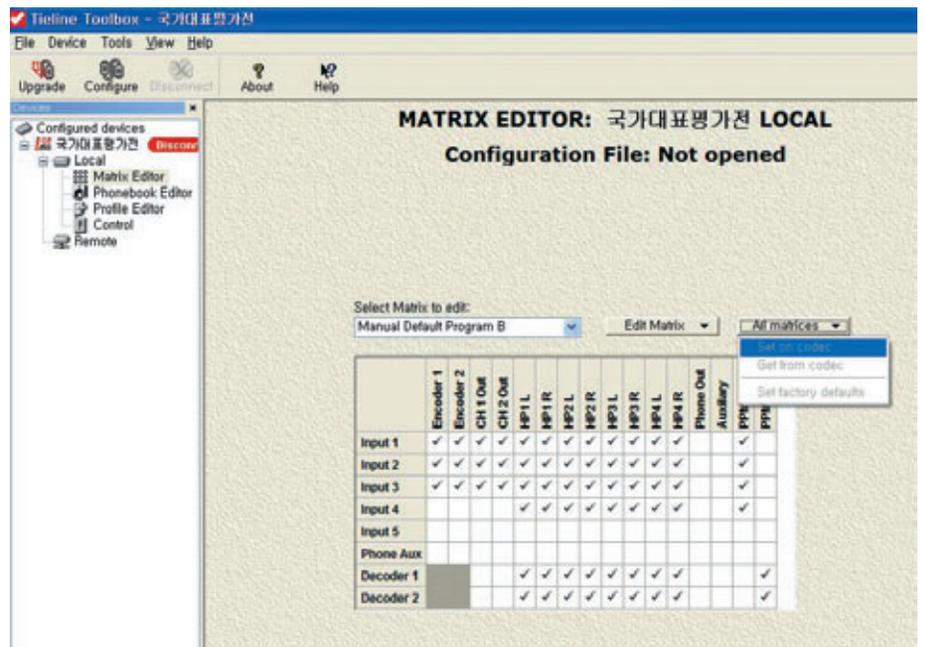
이번 코멘터리 시스템은 위성 CH3에 SBS COMMENTARY AUDIO를 실어주도록 이미 청약이 되어 있었다. 챙겨간 i-MIX G3 장비의 PGM을 현장 중계차에 넘겨주고, ISDN 회선을 통해서 PGM 송출 및 리턴 AUDIO 채널에 PD CALL을 받아서 사용했다.

장비마다 세팅방법이 다르겠지만, TIELINE G3 장비는 PC를 이용하여 MATRIX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에 맞게 장비의 MATRIX를 변경하여 사용했다.

장비 세팅 사항(G3 Matrix 변경 중심으로 설명)

- 입력 1 MIC1 : 해설위원
- 입력 2 MIC2 : 아나운서
- 입력 3 MIC3 : 예비 MIC
- 입력 4 : 현장 IS
- 리턴 : PD C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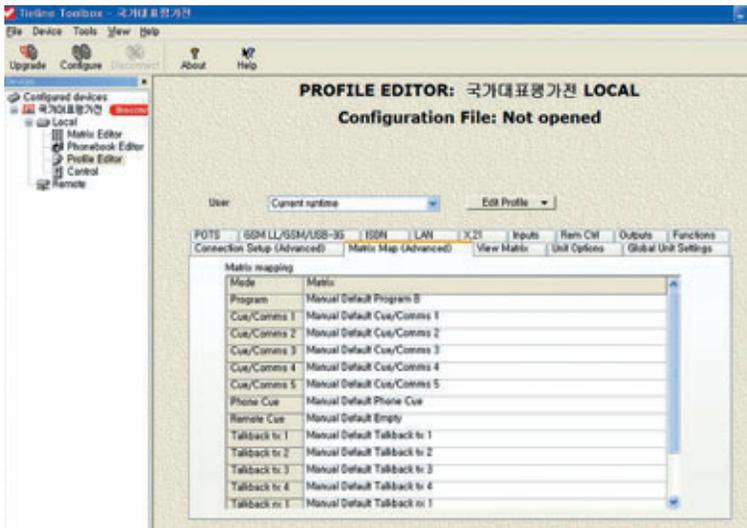
예로 들기 위해서 장비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MATRIX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Disconnected로 상태 표시가 되어 있다. 실제 장비 연결하고, Configure를 클릭해야 장비가 연결되고 저장 값이 저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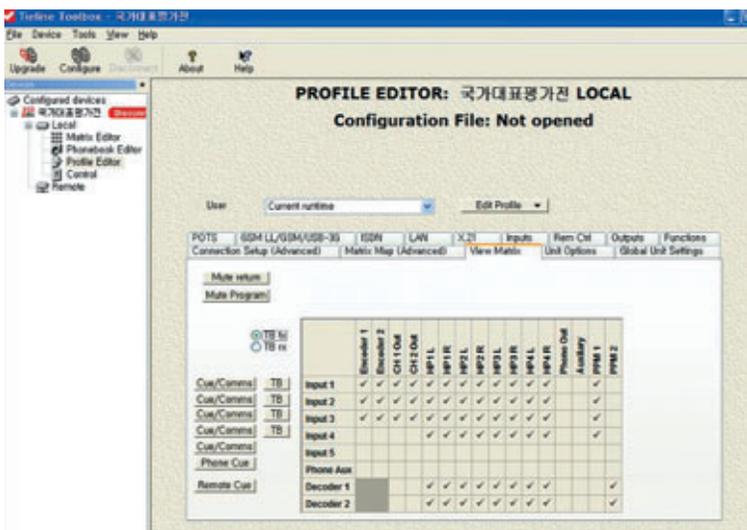
장비를 걸어주는 쪽의 Matrix가 걸린 쪽 장비에도 따라가기는 한다. 하지만, 반드시 현지 장비는 MATRIX Editor를 통해서 원하는 matrix로 변경해야 한다. 예를 들면, NQC에서 mono PGM으로 전화를 걸게 되면 현장 장비에는 mono PGM의 profile이 적용되고, 현지에서 mono PGM으로 전화를 걸때에도 NQC에서 마찬가지로 mono PGM의 profile이 적용된다.

하지만, Matrix Editor를 이용하여 현장 G3 장비의 Manual Default Program B의 Matrix를 edit해야 한다. Manual Default Program B를 원하는 matrix로 변경하면, mono PGM으로 NQC에 전화를 걸 때나, NQC에서 mono PGM으로 걸려 와도 변경된 matrix 그대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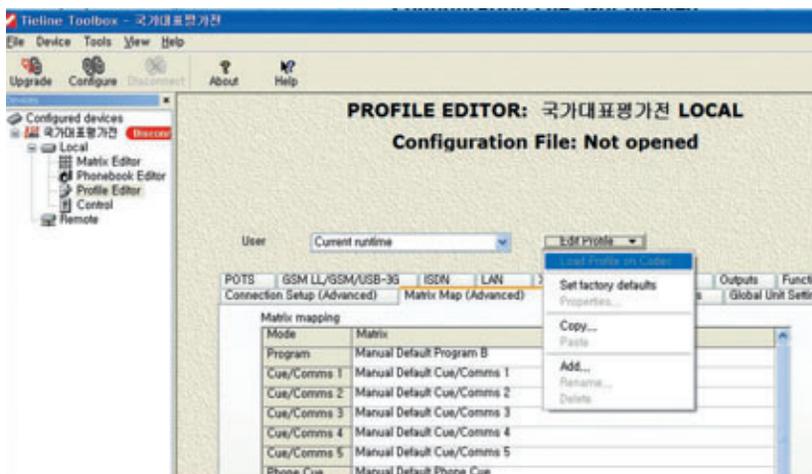
- ENCODER1, ENCODER2는 SBS로 가는 PGM
- CH1 OUT, CH2 OUT은 위성 송출 PGM 및 예비 ISDN 코덱용 PGM
- 입력 1, 2, 3은 MIC 레벨이나, 입력 4는 LINE 레벨로 설정하고,
실제 PGM에는 안 나가지만, HEADPHONE에서 들을 수 있게 매트릭스 상에서 체크
- Decoder1, Decoder2는 SBS에서 보내주는 리턴 오디오
- 편집을 마친 후에는 ALL matrices에 가서, Set on codec을 클릭하여 저장



Profile Editor에 가면 현재 Matrix의 상태가 원하는 대로 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모든 것을 확인했으면, Load Profile on Codec을 눌러서 Codec에 저장한다.



현장 코멘터리 시스템 구성시 유의할 점

1. 현장 코디네이션과 항시 연락을 취해서 준비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현장에 가기 전에 모든 준비 사항(ISDN 케이블 연결 및 번호 할당, 기타 IS AUDIO, PGM AUDIO 케이블이 설치)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기 당일 다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
- 항시, 만일의 사태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현지 엔지니어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시스템을 구성하고, 회선을 우선 개통시켜야 한다.

2. 송출하는 PGM의 경로와 전송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 위성 송출용 PGM의 경우에는 중계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코멘터리석 오디오의 PGM이 적절한 레벨인지 확인한다.
- ISDN을 통한 PGM의 경우, 여러 경로를 거치는 위성을 통한 PGM보다는 빠르기 때문에 위성이 열렸을 때, 현장 그림을 보면서 체크 멘트를 함으로써, 현장과 스튜디오 간 딜레이를 맞추어야 한다.

출장을 마치고

이번 출장은 지난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렸던 'ISU 4대륙 피겨선수권' 코멘터리 출장을 다녀온 이후 두 번째 코멘터리 해외 출장이었다. 빡빡한 일정에 여유가 없었고, 당일 경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준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출장을 통하여 급할수록 침착하게 방송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배울 수 있다. 그리고, NQC에 근무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코멘터리 신호를 운영하는 입장이었는데, 직접 필드에 나가서 코멘터리 신호를 보냄으로써, 위성 생중계 시스템에 대해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출장은 비록 바쁘고 긴박했지만 좋은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맑은 날이 드물다는 영국 날씨도 맑고 쾌청하여 런던 SOHO시를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고풍스런 건물들을 두 눈에 가득 담고, 다람쥐가 자유롭게 뛰노는 공원을 산책하는 알찬 시간을 보냈다.